

# 청소년창작소설에 나타난 부모-자녀 서사 연구

우신영\*

## || 차례 ||

- I. 문제의식
- II. 숫자의 세계 대 감각의 세계
- III. 말더듬이 아빠, 실어증 엄마
- IV. 상속의 논리
- V. 요약 및 결론

## 【           】

최근 인성교육에 대한 각성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직면해 있는 가치 불안의 수위는 심각하다. 문학은 그러한 불안의 강도를 짐작케 하는 일종의 진도계(earthquake intensity) 기능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청소년작가들이 생산한 청소년문학이야말로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그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허구의 힘을 빌려 분출된 장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청소년들이 직접 창작한 소설을 주된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연구는 청소년이 창작 주체가 된 청소년소설을 '청소년창작소설'이라 이름하고 이러한 작품군에서 형상화되고 있는 부모-자녀 관계, 그리고 이러한 형상화를 추동하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창작소설에서 가족 서사 특히 부모-자녀 관계가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가, 이러한 청소년창작소설의 가족서사가 탄생한 원인과 맥락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등의 연구 질문을 정립하였다. 이후 대산청소년문학상 수상작품집 『팝콘전쟁』(2014)에서 부모-자녀 관계가 주도적으로(dominant) 형상화된 작품 12편을 선정하여 질적 내용분석의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

\* 인천대학교 국어교육과 조교수

분석 결과 청소년창작소설 속 가족서사의 핵심 범주로 ‘숫자의 세계 대 감각의 세계’, ‘말더듬이 아빠, 실어증 엄마’, ‘상속의 논리’ 등이 도출되었다. ‘숫자의 세계 대 감각의 세계’에서는 성인들의 세계와 청소년들 자신의 세계를 이항대립적으로 구조화하는 ‘배치의 기술’(technic of assemblage)이 잘 드러나는데 성인들의 세계가 철저히 세속화된 숫자의 세계로 표상된다면 청소년들의 세계는 개성과 삶의 주권이 존중받는 다채로운 색의 세계로 표상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말더듬이 아빠, 실어증 엄마’에서는 소통이 불가능해진 부모-자녀 관계를 말더듬이, 실어증, 히키코모리 상태 등의 질병으로 은유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혔다. ‘상속의 논리’에서는 부모 세대가 주문처럼 되뇌었던 현실의 규칙이 모유 이데올로기(mother-milk ideology)로 학습되어 청소년들의 현실 인식을 틀고 있으며, 치열한 적자생존의 법칙이 이 시대 청소년들에게 일종의 “도덕적 정언명법”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주제어 : 청소년창작소설, 부모-자녀 서사, 청소년문학, 인성교육, 현실 인식

## I. 문제의식

*의식되지 못한 무의식은 운명이 된다.*

-칼 융(Carl Gustav Jung)

융의 고찰대로 개인의 ‘의식되지 못한 무의식’, 즉 운명이 조형되는 가장 기초적이고 결정적인 장소는 가정이다. 부모의 성적 결합으로 인해 꾸려진 이 공간 속에서 개인은 태어나고 자라고 분리된다. 가정은 인간의 물리적, 인지적, 심리적, 문화적 특성이 형성되는 가장 개인적인 장소이자 사회적인 장소이다.<sup>1)</sup> 이처럼 가정은 개인-사회의 경계선이자 그러한 경계선에

1) 집(home)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사이에 가로 놓인 비유적 경계선을 대표한다. 석지영, 『법의 재발견』, 김하나 역, W미디어, 2011, p.20.

서 있는 청소년과 닮아 있는 공간이다. 그래서 가정의 문제는 그 가정에서 나고 자란 청소년의 문제로 연계되고, 이러한 청소년의 문제는 그들이 성인이 되어 구성하는 사회로 확산된다. 그리고 이는 다시 각 가정에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이 거센 최근의 흐름이 무색하리만큼 청소년들의 가치 불안이 위험 수위에 육박해가고 있다는 점이다. ‘스윗 홈’에서 양육되어 ‘헬시 소사이어티’의 한 구성원으로 건설하고 안전하게 이동해갈 수 있는 청소년은 극소수이며 많은 청소년들은 가정을 질곡과 멍에의 운명으로 수용한다. 성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인지적, 정서적 복잡성을 보유한 청소년들을 그저 미성숙한 대상으로 취급하며 심리적, 물리적 폭력을 자행하는 부모, 그리고 부모와 유사한 성인들로 구성된 사회는 청소년들에게 애정과 증오, 기대와 혐오가 끊임없이 뒤섞이는 복합감정을 형성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의 배출구가 타인을 향할 때는 폭력의 연쇄고리가 형성되고, 자신을 향할 때는 자기파괴적 행위가 일어나기 쉽다.

한경자(2000)에서 강조하듯 청소년의 발달적, 정신적, 신체적 문제의 근본 원인은 대개 부모-자녀 관계에 귀착되어 있다.<sup>2)</sup> 대상관계 심리학에서는 어릴 때 내재화된 대상관계가 이후의 모든 대인관계에서 재현, 반복된다고 보는데 이때 가장 근원이 되는 것이 양육자와의 관계이다. 초기 양육자와의 관계에 따라 타인과 자기개념이 형성되고 인간적 정서에 대한 학습이 일어난다. 즉 가정은 정서지능 발달을 좌우하는 학습의 장(場)인 것이다.<sup>3)</sup> 하지만 이러한 초기 양육자와의 원만한 접촉이 좌절되면 개인의 정신

2) 한경자, 『아동양육과 간호역할』, 『부모-자녀 건강학회지』 3-1, 부모자녀건강학회, 2000, p.95.

3) 유가효, 김길안, 『부모자녀관계와 청소년의 정서지능』, 『인간발달연구』 10-1, 한국인간발달학회, 2003, p.3.

적 표상은 손상되고 타인과 세계에 대한 인식 역시 비관적으로 정향된다. 한 인간을 살게 하는 내적 작동 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이 망가지고 비극적 자기서사가 쓰여 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쇄작용을 단기(斷機)하기 위해서는 부모-자녀 관계라는 운명, 즉 '무의식'을 의식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부모-자녀 관계는 가정이라는 공간의 내밀함과 혈연이라는 물리적, 정서적 밀착성 등으로 인해 오히려 치열한 의식이나 탐구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그래서 부모-자녀 관계의 문제는 가정 내 사생활이라는 베일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가장 극악한 방식으로 폭발하기도 한다. 문학교육이 학습자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의도적 개입인 이상 학습자-청소년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작업은 문학교육의 의무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수혜자이자 소비자인 청소년들의 욕망과 욕구, 문제 의식에 귀 기울이려는 시도는 드물었다. 문학교육 내용의 탐구나 방법론적 모색도 중요하지만 정작 학습자의 더 나은 삶(better life)에 무심하다면 이는 인간의 정서적 성장을 도모하는 문학교육의 본령과 배치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본고는 청소년들이 직접 창작한 소설에서 가족, 특히 부모-자녀 관계가 어떻게 표상되어 있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한다. 즉 이 연구는 청소년창작소설 속 부모-자녀 관계에 관한 탐험(exploration of parent-child relationship)이다.

이러한 연구 목표에는 다음의 두 가지 가정이 전제되어 있다. 첫째, 부모-자녀 관계를 위시한 가족 관계는 그 내밀성과 복합성으로 인해 허구 서사의 공간에서 오히려 탐구되기 쉽다. 둘째,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인식과, 진단, 탐구, 문학적 해결 과정이 모두 담겨 있는 텍스트가 바로 청소년창작소설이다. 청소년소설이 주로 형상화하는 공간이 학교와 가정임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학교가 청소년들의 공적 영역을 대표한다면, 가정은

자신을 형성해가는 내밀성의 영역인 동시에 압축된 사회(microsociety)이기 때문이다.<sup>4)</sup> 그래서 청소년소설에 나타난 부모 표상이나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분석은 기존의 문학교육 담론에서도 일정 정도 누적되어 왔다.

그러나 정작 청소년들이 직접 형상화해낸 부모-자녀 관계의 양상과 의미에 대해서는 연구사적 공백이 남아있다. 청소년작가들의 작품에 표상된 부모-자녀 관계가 성인작가들의 그것에 비해 적극적 탐구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것이다. 이는 그동안 청소년을 위해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혹은 청소년을 위해 쓴 청소년 소설에 우선적으로 주목해왔던 연구 풍토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청소년의 소설에 담긴 쓰기 욕망, 그리고 그 쓰기 욕망을 추동하는 삶의 문제를 진단하고 교육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창작소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성진(2011)은 ‘청소년 문학’이라는 용어에서 ‘청소년’이 창작 주체, 독서 주체, 문학적 소재 차원으로 삼원화된다고 지적하면서, 그 중에서도 특히 생산자로서의 청소년을 강조한 바 있다.<sup>5)</sup>

물론 청소년이 생산한 소설은 구조적 미학성이나 완결성, 문학사적 의미에 있어 전문작가의 것과 대등한 위치에 서기 어렵다. 그런 까닭에 청소년작가가 생산한 작품이 국문학적 탐구의 대상이 되는 일은 드물다. 그러나 그러한 ‘결함’ 대신 그들이 왜 그러한 이야기를 계속 생산하는지 그 욕망을 읽어주는 작업이 문학교육적 탐구에서는 필수적이다. 청소년들이야말로 현재의 문학교육을 구성하는 주된 인적 주체이자 미래의 문학교육을 설계하기 위한 변인이며 문학문화의 생비자(prosumer)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청소년이 창작 주체가 된 청소년소설을 ‘청소년창작소

4) 황도경, 나은진, 『한국 근현대문학에 나타난 가족담론의 전개와 그 의미: 현대소설』,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2,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4, p.252.

5) 김성진, 『청소년 소설의 장르적 특징과 문학교육』, 『비평문학』 39, 한국비평문학회, 2011, pp.66-67.

설'이라 이름하고 이러한 작품군에서 형상화되고 있는 부모-자녀 관계, 그리고 이러한 형상화를 추동하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물론 특정한 청소년창작소설이 우리사회 청소년이 가정에서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대표하는 증례(case)는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적 대표성이 아닌 질적 대표성이다. 사회학이 양적 대표성을 가진 집단을 분석하여 일반화될 수 있는 패턴과 법칙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과 달리, 이 연구는 개별 작품들이 부모-자녀 관계를 허구서사의 장르문법 안에서 다루어나가는 고유한 방식들을 탐구하고, 그것이 암시하는 교육적 의미를 포착하는데 관심을 둔다.

본고의 연구 질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창작소설에서 가족 서사 특히 부모-자녀 관계가 어떻게 표상되고 있는가?

둘째, 이러한 청소년창작소설의 가족서사가 탄생한 원인과 맥락,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채택한 연구대상 및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2회 대산청소년문학상 수상작품집 『팝콘전쟁』(2014)에서 부모-자녀 관계가 주도적으로(dominant) 표상된 작품 11편을 선정하였다.<sup>6)</sup> 대산청소년문학상은 그 역사와 권위가 상당한 청소년문학상으로

6) 김은빈, 류연웅 외, 『팝콘전쟁』, 대산청소년문학상 수상 작품집 22, 민음사, 2014. 본문에서 위 책이 인용될 때는 인용문 끝에 쪽수만 표기한다. 선정 작품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이정문, 「삼각김밥에 대한 보고서」, 임정민, 「감별사들」, 유희주, 「노아를 위하여」,

1993년도부터 23년간 시행되고 있다. 그 중 가장 최근 단행본으로 출판된 작품집 『팝콘전쟁』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연구의 시의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시대적 문제성과 문학성에 대한 치열한 추구가 의미 있는 소설의 조건임을 수용할 때, 그리고 ‘10대들의 민얼굴’이 진지하게 ‘고백’되는지에 주목한다는 대산청소년문학상의 취지를 참고할 때<sup>7)</sup>,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작품들은 작금의 현실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설적 성취를 검비하였다는 표지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양적 수량화의 방법은 작품 속 표상과 그 맥락에 대한 고찰을 담보할 수 없기에, 이 연구는 질적 내용분석을 주된 연구방법으로 도입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의 과정을 개략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정된 작품 11편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핵심 아이디어를 메모한다. 둘째, 작품 속에서 부모-자녀 관계가 주도적으로 표상된 부분을 추출하여 해당 부분의 특징이나 경향성을 대표하는 어휘나 어구로 코딩한다. 셋째, 추출된 부분을 수합, 편집하여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코딩을 수정한다. 그 결과 총 12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넷째, 이를 다시 원문과 대조하여 검토, 수정한다. 다섯째, 범주들 간의 위계성과 중복성을 고려하여 조정, 최종 3개의 핵심범주-‘숫자의 세계 대 감각의 세계’, ‘말더듬이 아빠, 실어증 엄마’, ‘상속의 논리’를 도출한다. 분석 과정에서 소설 속 부모상을 분석하는 간호학의 연구<sup>8)</sup>나 부모서사-자녀서사에 대한 국문학적, 문학치료적 연구<sup>9)</sup> 등의 선행

성유경, 『제이』, 이슬희, 『카무플라주』, 이예지, 『물결』, 이현홍, 『도도새』, 지동준, 『안녕, 침팬지』, 조정빈, 『당신은 나쁜 사람입니다』. 박민곤, 『책』, 서민영, 『아빠』

7) 신창재, 『작품집을 펴내며』, 『팝콘전쟁』, 대산청소년문학상 수상 작품집 22, 민음사, 2014, p.5.

8) 박은숙, 김은경, 성경숙 외, 『개화기 근대소설을 통해 조명한 한국의 부모상』,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11, 아동간호학회, 2005.

9) 최새은, 『90년대 단편소설에 드러난 가족의 의미 : 발달적 관점에서 바라본 자녀서사

연구가 참조되었다.

## II. 숫자의 세계 대 감각의 세계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청소년작가들의 소설에서 공히 두드러지는 것은 성인들의 세계와 청소년들 자신의 세계를 이항대립적으로 구조화하는 ‘배치의 기술’(technic of assemblage)이다. 이러한 구조는 매우 선명하고 완강하여 두 세계 간의 교통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묘사된다.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는 물리적으로만 근접해 있을 뿐, 의미 있는 접촉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는 그들의 세계가 지닌 본질적 차이 때문인데, 청소년작가들은 그 차이를 다음과 같이 표상한다. 먼저 부모의 세계는 흑백 혹은 명징한 삼원색으로 그려진다. 그들은 이미 삶의 가치에 대한 탐구와 방향이 완료된 상태이며 따라서 명확한 가치 체계와 가치 간 서열을 확정해두었다. 그들이 이러한 확정적 상태를 자녀에게도 곧장 요구하는 데서 두 세계 간의 갈등이 시작된다. 청소년들의 세계는 다양한 색채들이 넓은 스펙트럼으로 펼쳐져 있는 상태로 표상된다. 청소년들이 한창 그 색채들의 다양성과 유동성을 만끽하고자 하는 찰나 그들은 부모의 통제와 직면한다.

이슬희의 소설 <카무플라주> 속 청소년 ‘나’는 ‘나’가 키우는 카멜레온

---

와 부모서사, 『문학치료연구』 28, 한국문학치료학회, 2013; 하은하, 『부모서사진단검사도구의 문항설정』, 『문학치료연구』 10, 한국문학치료학회, 2009; 정선희, 『17·18세기 국문장편소설에서의 부모-자녀 관계 연구』, 『한국고전연구』 21,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조희정, 『치료 서사와 부모 이야기 쓰기』, 『국어교육』 114, 한국어교육학회, 2003; 황혜진, 조은상, 김혜미, 김지혜, 김현희, 『초기 청소년기 폭력성의 문학치료적 중재를 위한 시론 -폭력성 진단을 위한 폭력 상황의 유형화를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55, 겨레어문학회, 2015 등이 대표적이다.



이 표상하는 다채로운 색의 세계에 거주하고 있다. 반면 ‘나’에게 경영대학 진학만을 강요하는 어머니는 단순명백한 삼원색의 세계에 가깝다. 결국 어머니로 인해 나의 세계는 삼원색의 합인 ‘검정’으로 탁해진다.

“어머니는 세상에 얼마나 다양한 색깔이 있는지 알지 못했다. ‘빨강이면 빨강, 파랑이면 파랑’인 것이 어머니의 삶의 방식이었다...어머니는 원색의 빨강, 파랑 그리고 노랑 속으로 나를 밀어 넣었다. 상위권의 성적과 정해진 진로로, 어머니는 불분명한 선택은 하지 않았다. 그렇게 빨강, 파랑, 노랑으로 혼합된 나는 곧 까맣게 바뀌며 탁해졌다.”(245)

청소년들은 그들이 지닌 다양한 색깔을 명백한 삼원색으로 축소하려는 성인들의 시도로 인해 아픔을 겪는다. 주목할 만한 것은 적극적인 저항보다는 우회적 저항이나 순응, 혹은 자기 파괴적 상태가 더 빈번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 청소년은 여전히 부모와 물리적으로 공존하며 경제적, 심리적 이유기(離乳期)를 통과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녀의 삶에 대한 부모의 개입은 절대적 목소리(Voice)의 위상을 지닐 수 밖에 없다. 이 절대적 목소리는 가부장제 특유의 종적 위계질서와 맞물려 자녀를 소유물화하고 자녀의 삶 전체를 조직, 군림하려는 부모의 신체적/정신적 폭력으로 이어지기 쉽다.

이러한 폭력을 이현홍의 소설 <도도새>는 ‘깃털 뽑기’ 작업에 비유한다. <카무플라주> 속 엄마처럼 <도도새> 속 ‘나’의 엄마도 ‘나’에게 상경계 진학을 권유한다. 이 두 소설 속 엄마들의 발화는 쌍둥이처럼 닮아있다. 그에 반해 자신만의 고유하고 존엄한 삶을 꿈꾸는 ‘나’는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도도새에 비유된다.

“공부 포기할 거냐. 너 이래선 대학 못 가. 정말 너 나중에 거지 되고 싶어? 나보다 내 미래에 대해 더 많이 아는 것 같은, 내 미래에 대한 이어지는 욕 같은 단정에 이미 화는 머리끝까지 차올랐다. 그러다 마지막 말에서 폭탄은 폭발했다. 부모 얼굴에 자꾸 먹칠할거야? 어찌라고. 그게 왜 엄마 아빠한테 먹칠하는 건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막말하지 마. 그리고 마지막 ‘마’가 채 끝나기도 전에 따귀가 날아왔다... 따귀는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교내 입시 상담에서, 진로 상담 때에도 따귀는 계속 내 뺨을 갈겨 댔다. 그러니까 따귀는, 현실이었다.”(281)

‘나’의 꿈을 경청하기 보다는 “나중에 거지 되고 싶어?”라는 말로 그 꿈의 비극적 결말을 단언하는 부모의 의식 근처에는 자식이 “부모 얼굴에 먹칠”할 것에 대한 깊은 공포감이 서려 있다. ‘나’는 “도도새라면 따귀가 아닌, 새살이 술술 마데카술 같은 걸 줄 것 같다.”(281)는 생각을 하면서도 부모가 시키는 대로 상경계 진학을 준비한다.

“과의 첫날은 그런 입시 전략과 앞으로의 공부 계획 같은 걸 세우며 끝났다. 하지만 고민은 끝나지 않았다. 내가 하고 싶은 건 뭐였지. 어릴 적에는 있었던 것 같기도 한다. 깃털을 뽑은 자리에 멧힌 피딱지가 간지러워 나는 쉽사리 잠을 잘 수가 없었다.”(285)

이러한 깃털 뽑기 작업이 더욱 극단적인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는 성유경의 소설 <제이>의 경우를 살펴보자. 주인공 ‘나’의 엄마는 ‘나가 잠을 잘 때조차 영어 테이프를 틀어놓고, 기분 내킬 때마다 물리적 폭력을 휘두르는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엄마의 목소리가 따라 나와 나를 헤집었다. 내 머리맡에서 영어 단어를

읽는 엄마, 잘 때도 영어 테이프를 틀어 놓는 엄마. 나는 그 소리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다.”(233-234)

‘나’는 충실한 모범생이지만 엄마의 끝없는 기대치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도 영원한 미도달 상태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나’는 완벽을 추구하는 엄마에게 ‘손거스러미나 잘못 박힌 못’과 같은 존재이며, ‘나’의 불완전성은 엄마의 결벽성과 강박증을 끊임없이 자극한다. 이 불행한 관계를 조율해야 할 아빠는 사태를 방치한 채 집을 나가버린다. 고립된 ‘나’는 끝없이 울리는 ‘공장소리’를 듣게 되는데,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와 제이 뿐이다. 제이는 부유하지만 무관심한 부모에 의해 방치된 소녀로, 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인물이라는 점이 의미심장하다. 어떤 언어도 사용할 수 없는 제이만이 ‘나’의 내면 세계와 소통할 수 있다는 역설 속에서 ‘나’는 제이를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모스 부호”(240)라 명명한다. ‘나’만이 제이를 해독할 수 있고, 제이만이 ‘나’를 해독할 수 있다. 환청을 공유하는 이 유일무이한 관계 속에서 처음으로 ‘나’는 공감과 안식을 경험한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를 대신하는 제3의 교육적 존재를 등장시키는 청소년작가소설에는 <제이> 외에도 앞서 살펴보았던 <카무플라주>, <도도새> 그리고 임정민의 소설 <감별사들> 등이 있다. 이러한 제3의 존재들은 성인처럼 청소년의 ‘따귀’를 때리지 않고 대신 상처에 ‘마테카술’을 발라주는 존재이다. 이런 존재를 발견하지 못할 경우 박민곤의 소설 <책>의 경우처럼 완전한 심신상실 상태라는 비극적 귀결을 맞기도 한다. <책>에서 청소년 ‘나’는 어른들에 의해 강요된 학업을 상징하는 ‘책’이라는 존재에 문자 그대로 ‘잡아먹힌다’. ‘나’를 조금씩 조금씩 파먹어가던 ‘책’은 마침내 피투성이 ‘나’를 흔적도 없이 삼켜버린다.

“책은 쪽 찢진 눈을 부라리며 이죽대고 있었다. 헤헤. 세상이란 놈이 너를 물어뜯었다. 헤헤. 인생의 패배자야. 책은 날카로운 혀로 입가에 묻은 피를 핥아먹었다. 마지막 남은 피까지 빨아먹겠다는 듯이. 그리고 책은 입맛을 찹찹 다셨다.”(364)

강고하고 포악한 현실 논리, 그리고 그 논리의 주창자이자 순용자인 성인들이 가차 없이 청소년에게 ‘패배자’라는 낙인을 찍을 때, 청소년들은 성인과 대등한 인간이 아니라 포식자 앞에 선 먹이사슬 최하단의 생물로 처리된다. 많은 청소년창작소설에서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카멜레온이나 도도새, 병아리 같은 동물로 형상화하는 것은 이러한 사태에 대한 상징적 작업으로 분석될 수 있다. 멸종 위기에 처해있거나 감별 후 죽임당할 운명이 이 나약한 동물과 대조되면서 성인들의 세계는 더욱 그로테스크한 힘을 갖게 된다.

이러한 작품 속 부모, 특히 어머니는 자녀들을 낳고 목조르고 삼키는 ‘팔루스적’ 어미로 형상화된다.<sup>10)</sup> 청소년이 응당 지녀야 할 삶의 주권을 몰수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려는 이 공포스러운 어미들과 대적할 물리적 힘이 청소년들에게는 부재한다. 김은하(2010)는 이러한 팔루스적 어미를 등장시키는 소설이 모성을 단순한 공포와 혐오의 대상으로만 형상화하기 때문에, 그 어미들을 만들어낸 맥락-교육제도, 자본주의, 계급, 가족, 부권 등-에 대해 침묵한다고 지적한다. 이는 적실한 지적이지만, 청소년작가들에게 현실 맥락에 대한 통찰이 공히 부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 한 예로 임정민의 소설 <감별사들>을 살펴보자.

10) 김은하, 「청소년 문학과 21세기 소녀의 귀환-여성작가의 청소년 소설을 대상으로」, 『여성문학연구』 24, 한국여성문학학회, 2010, pp.305-306.

“엄마는 그제야 입술을 달싹였다. 저희 애는 미대 준비 안 합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저는 취업 쪽을 생각하는데...선생님은 그날 결국 병아리 감별사라는 이색적이고도 전망 있는 직업을 추천해 주었고, 대학도 그에 맞추어 전문 대학 몇 곳을 점찍어 주었다. 뚜렷한 점이 찍힐 때마다 엄마의 눈이 빛났다. 엄마는 홀가분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 눈에서 투자 가치 없던 두 딸년의 미래를 처리한 것에 대한 가벼움을 엿보았다...나는 언니와 같은 등급이 매겨졌다. 너는, D라고.”(171-172)

소설 <도도새> 속 인물 ‘도도새’처럼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는 인물 ‘나’가 등장하지만, ‘나’의 소망은 엄마와 담임교사의 짧은 상담 결과 신속하게 반려된다. 그 이유 역시 간명하다. 어차피 현실논리 속에서 “D등급”에 위치할 것인 뻔한 자녀에게는 투자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문대학 병아리감별학과에 지원할 것을 결정한 엄마의 눈에는 “홀가분”함만이 빛난다.

Berstein(1971)은 부모의 통제 방식을 지위지향적 부모와 인성지향적 부모로 유형화한 바 있다.<sup>11)</sup> 지위지향적 부모는 가족 구성원이 사회에서 점유하는 역할과 지위를 중시하므로 역할 기대에 의해 아동을 통제하고자 한다. 반면 인성지향적 부모는 역할과 지위보다는 개인이 보유한 삶의 주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각자의 개성과 의사 결정에 우선권을 둔다.<sup>12)</sup>

분석 대상이 된 작품들에서는 주로 전자의 부모가 등장하는데 이들이 애초에 지위지향적 부모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먹고’ 그래서 ‘살아’ 남아야

11) B. A. Bernstein, *Class, codes and control: Theoretical studies towards sociology of language*, London, UK: Routledge&Kegan Paul, 1971.

12) 차경애, 『어머니의 언어유형과 아동의 인지능력의 발달』, 『사회언어학』 5-2, 한국사회언어학회, 1997, p.708.

하는 현실에 의해 지위지향적 부모로 형성된 것임을 청소년작가들은 이미 간파하고 있다. 소설 속 부모들이 청소년들의 날개를 임시로 묶어두거나 영구적으로 절단하면서 내미는 논거가 바로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청소년소설에서 이토록 일관되게 형상화되는 ‘현실’의 의미는 무엇인가? 본고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팔루스적 어머니 앞에 선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부모-성인 역시 팔루스적 현실의 공포와 직면해 있다.

한국전쟁과 산업화, IMF 사태를 압축적으로 경험해온 성인들에게는 ‘먹기’가 곧 ‘살기’의 동의어이다. 신셋별(2015)에 따르면 한국전쟁은 치욕적인 허기의 경험을 선사했고 유교적 이념이 허물어진 자리에 먹이/생활에 의 현신이 들어섰다. 육체더라도 먹고 그래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이 ‘별거벗은 삶’을 살아본 자들의 모토가 되었다. 삶은 먹이를 구하기 위한 ‘전쟁’으로 비유되고, 이 전쟁의 대열에서 낙오되는데 대한 불안심리가 일종의 민족적 망탈리테(mentalité)로 공유된다.

부모-성인들은 자녀 세대에 이러한 불안 심리를 상속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강화하고, ‘먹기’와 ‘살기’를 지탱하는 명징한 지위와 보장된 안정성을 지상목표로 설정한다. ‘공부’를 유일한 입신양명의 도구로 여겨온 전통이 이러한 현상과 불행하게 맞물려 들면서 부모-성인들은 너무나 당당하게 자녀의 도리를 공부로 규정하게 되는 것이다. 내 새끼가 배 굶지 않는 삶을 살기를 양망하는 부모의 원초적 애정이 외려 부모-자녀의 세계를 끝 간 데 없이 유리시키게 된 것이다. 박완서의 소설 <도시의 흉년> 속 이수연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끊임없이 먹이려 드는 지독한 ‘모성애’에 대해 거식증으로 맞서는 장면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즉 이수연의 거식은 먹이를 위해 투쟁하는 속물적 세계에 대한 저항의 표지이자, 자신만의 주체적 삶을 코드화하는 방식인 것이다.<sup>13)</sup>

부모-자녀 간의 소통불가 상태가 길어지면서 점차 그들은 서로에게 완

전히 해독 불가능한 코드가 되어버린다. 청소년들이 스스로는 동물로, 부모는 괴물로 형상화할 때-〈잔혹동시〉 사건에서 드러나듯 해독될 수 없는 존재는 종종 괴물화된다<sup>14)</sup>- 그 근저에는 부모를 ‘인간적으로’ 해독할 수 없다는, 그러나 해독하고 싶다는 욕망이 존재한다. 그럴 때만이 청소년 자신 역시 ‘동물’에서 ‘인간’으로 귀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작가소설 속 ‘나’들이 피투성이로 내뿜는 발화들은 성인들에 의해 짝이 잘린 삶의 자기창조권을 회수하겠다는 외침이며, “어떤 품질의 삶이든 지 간에 개인 자신에게 진실한 삶을 살려는 파토스이다.”<sup>15)</sup>

### Ⅲ. 말더듬이 아빠, 실어증 엄마

청소년작가소설에 표상된 청소년의 세계와 성인-부모의 세계는 물리적으로는 매우 긴밀하게 유착되어 있으나 심리적/상징적으로는 소통불가 상태인 경우가 지배적 경향을 이룬다. 이는 전술했듯 부모의 괴물화 양상으로 이어지는 한편 이러한 소통의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질병 상태로 은유하는 양상 역시 두드러진다. 특히 이 질병은 언어적인 것일 때가 잦은데,

13) 신셋별,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먹는 인간’의 의미』, 『상허학보』 45, 상허학회, 2015, p.351.

14) 10살 이순영 양의 시 ‘학원가기 싫은 날’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학원에 가고 싶지 않을 땐//이렇게//엄마를 씹어 먹어/삶아 먹고 구워 먹어/눈깔을 파먹어/이빨을 다 뽑아 버려/머리채를 쥐어뜯어/살코기로 만들어 떠먹어/눈물을 흘리면 핏아 먹어/심장은 맨 마지막에 먹어//가장 고통스럽게> 이 시가 일으킨 파문으로 인해 성인들은 그들이 동화의 세계, 혹은 ‘착한’ 청소년문학의 세계에 거주한다고 믿었던 자녀들이 실상은 ‘잔혹동화’의 세계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목도하게 된다. 성인들이 ‘실제’ 아동/청소년의 욕망에 대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무지하고자 했는지 성찰할 수 있다.

15) 황종연, 『비루한 것의 카니발』, 문학동네, 2001, p.31.

『팝콘전쟁』 속 부모들은 자주 말을 더듬거나 잃거나 독백만 거듭한다. 그들은 언어화될 수 없는 자아 속에 히키코모리(引き籠り) 상태로 유폐된다.

구병모의 소설 <위저드 베이커리>(2009)<sup>16)</sup> 속 청소년 ‘나’가 문자를 보지 않고는 발음을 할 수 없는 언어장애를 겪었던 것과 대조적으로 이제는 부모가 언어장애 상태를 겪고 있다. 성인 작가가 쓴 청소년문학 속 십대들이 가정문제로 인해 언어장애에 빠지는 것과 달리, 청소년작가소설에서는 부모가 외려 언어(소통)장애 상태라는 점이 의미심장하다.

부모들은 타의에 의해 말더듬이 상태로 유폐(<안녕 침팬지>)되어 있거나 자발적 고립을 선택하며(<삼각김밥에 관한 보고서>), 혹은 의미 없는 독백(<아빠>)만 거듭하거나 해독될 수 없는 언어를 사용하다 그마저 읽는 실어증(<물결>)에 빠진다. 자연히 자녀들과의 소통은 물론 세상과의 소통도 원만할 수 없다. 이예지의 소설 <물결>의 경우에만 유일하게 엄마가 등장하는데, 네팔인인 엄마는 사춘기 딸인 ‘나’와 언어적/정서적 관계가 결렬되어 있다. 엄마의 검은 피부를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어린 ‘나’는 초등학교 공개 수업 때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은 후부터 달라진다. ‘타자’의 눈으로 엄마의 피부 색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다. 마도로스였던 아빠의 죽음 이후 엄마는 절망 속에서 한국어도 네팔어도 잃어버린다.

“엄마는 말을 잃어버렸다. 징검다리처럼 허술했던 말마저 잃어버리자, 엄마와 나는 정말로 멀찌감치 떨어진 외판섭처럼 의미 없이 마주보고 똥똥 떠 있다.”(256)

그리고 이러한 엄마의 증상을 치유할 책임은 딸에게 주어진다. 딸은 네팔어를 배움으로써 엄마의 언어, 엄마의 세계와 재접속을 시도한다.

16) 구병모, 『위저드 베이커리』, 창비, 2009.



“내가 엄마의 말을 잃게 했으니 다시 찾아 줘야 하는 것도 나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는 아빠가 마지막에 엄마에게 남긴 말의 의미를 찾았다. ‘빠뜨닐 마야 거르츠’ 우리 말로 하면, ‘여보 사랑해’”(268)

이처럼 청소년 인물이 부모/성인의 병에 능동적으로 개입하고 성숙한 치료자 역할을 떠맡음으로써 일반적인 부모-자녀의 권력구도가 전도되는 양상은 다른 청소년작가소설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난다. 지동준의 소설 <안녕 침팬지>에서 말도, 세상살이도 모두 서툰 말더듬이 아빠는 동물원 철창 속 침팬지와 동일시된다. 아빠의 심각한 말더듬이 증상은 말놀이의 규칙, 나아가 세상살이의 규칙에 서툰 그의 성향을 암시하는 메타포로 작동한다. 소설 전체에 걸쳐 미련한 몸짓으로 탈출을 회구하는 유원지 침팬지와 세상살이에 무기력한 아빠가 끊임없이 병치되는데, 침팬지와 아빠를 실제적/상징적 철창에서 탈출시키려는 ‘나’의 시도는 실패하고 만다.

“그러니까 엄마도 도망가고 그러는 거잖아. 무슨 말만 하면 장애인같이 어, 어, 어 거리는데 누가 같이 살고 싶겠어. 씨발, 나 같아도 도망가겠다. 나는 떠날 거야. 이 지긋지긋한 컨테이너를, 유원지를, 학교를 떠나서 자유롭게 살 거라고. 아빤 계속 이딴 식으로 살아. 그래, 철창 안에 갇혀서 지나다니는 사람들 구경이나 해. 계속 개새끼처럼 그러고 살아!” 아버지가 손을 뻗으며 입을 열었지만, 나는 닥치라고 소리쳤다.(303)

위 인용문에서는 전통적인 가부장제의 종적 질서가 완전히 전도된 부자 관계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그럼에도 ‘나’는 고전소설 속 어린 영웅들처럼 분명히 출가하지 못한다. 대신 동정과 경멸이 뒤섞인 상태로 아버지를 ‘돌본다’. 결국 ‘나’는 결말부에서 아버지와 극적 화해에 도달하는데 그 화해의 장소는 다름아닌 은과유원지의 관람차이다. 관람차는 침팬지가 갇혀있던

유원지나 아버지가 간혀있던 컨테이너처럼 여전히 유풀된 공간이기는 하지만 일시적으로 현실의 중력과 논리를 떠나 높은 위치에서 세상을 내려다 볼 수 있게 해주는 공간이기도 하다.

“아버지의 얼굴은 칠판지 같기도 했고, 낯선 사람 같기도 했다...나는 점차 같은 세상을 내려다보며 부드럽게 손을 흔들었다. 그도 나를 따라 손을 흔들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맞잡은 채로, 철창에 간혀 있는 세상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이 안녕은 세상의 모든 칠판지를 향한 인사다. 나는 입술을 오물거리며 낮게 내뿜는다. 안녕, 칠판지들.”(309)

물론 관람차는 다시 땅으로 내려 올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이후에도 이 화해가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관계의 봉합이 일시적이거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전권을 자녀인 청소년이 쥐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서민영의 소설 <아빠>에서도 엄마가 돌아가신 후 폐인이 되어버린 아빠를 치유해주는 것은 16세 소녀 ‘나’이다. 이 소녀는 ‘부모 화된 아이’<sup>17)</sup> 개념을 소설적 육체로 거의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는 인물이다. 엄마의 죽음이라는 불행 앞에서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아빠를 대신해 집안을 돌보고 살림을 꾸리며 심지어 원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고자 학업에 매달려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다. 웃자란 버린 이 소녀는 소주병을 달고 사는 아빠에게 불꽃축제에 가자고 조르는 대신, 그를 엄마의 무덤으로 이끈다. 그리고 문방구에서 산 작은 폭죽을 터뜨리며 아빠의 기쁨때 낀 손을 잡아 준다.

17) “부모화는 어린 시기부터 부모를 보살피는 역할을 맡게 되는 부모-자식 간의 역할전이를 일컫는다.” 조은영, 정태연, 『자녀의 부모화와 관련된 심리적 특성들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9-1, 한국심리학회, 2004, p.45.

“문방구에서 산 폭죽이라 실제 불꽃축제의 불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았다. 그렇다고 예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겨울 아침 하늘에 터지는 불꽃도 봐줄만 했다. 내 옆으로 다가와 마치 어렸을 때처럼 손을 잡아 오는 아빠의 기름때 낀 손은 그때만큼이나 따뜻했다. 열여섯 살의 내가 찾아낸 가장 따뜻한 발견이었다.”(377)

물론 늘 이런 화해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정문의 소설 <삼각김밥에 관한 보고서>에는 여느 소설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형태의 부자 관계가 등장한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청소년 ‘나’는 삼각김밥에 대한 탐구에 광적으로 매달린다. 삼각김밥을 이해할 때 비로소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식이다. 그 까닭은 소설의 중반부를 넘어서며 드러난다. 통계학과 교수인 아빠는 서재 깊이 숨어들어 타인과의 관계를 거부하는 인물로 형상화된다. 정서적 관계를 맺을 줄 모르는 그에게 지쳐 아내와 딸은 떠나버렸으며, 마지막 남은 아들 ‘나’가 찌개를 끓여 권할 때도 그는 아들과 함께 식탁에 앉는 것을 거부하고 다시 서재로 돌아간다. 그러던 그가 갑작스러운 구토 증세를 보이고, ‘나’는 아빠의 토사물을 본 뒤 그가 그동안 서재에서 삼각김밥만 먹어왔음을 알게 된다.

“처음에 나는 삼각김밥에 관한 논문을 작성하려고 했지만 ‘논문’이라는 단어가 나를 역겹게 만들었다. 아빠가 1년에 네 번씩 작성하는 그놈의 논문 때문에 그랬다”(146)

“내가 세 번째로 아빠에게 밥을 먹자고 한 날, 나는 집을 나왔다. 함께 밥을 먹자는 부탁을 거절당해서는 아니었다...내가 하고 싶은 공부는 인문학, 그 중에서도 심리학이었다. 나는 이해를 하고 싶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왜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지...아빠가 계워 낸 삼각김밥은 나보다 자신의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각적인 증거였다.”(155-157)

즉 ‘나’에게 삼각김밥은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라는 증거이자, 아빠를 이해할 수 있는 마지막 열쇠였던 것이다. 끝내 ‘나’는 삼각김밥에 대한 이해에 실패하고, 아빠는 ‘나’와의 대화를 거부한다. 이처럼 분석대상 소설들에서는 유독 아빠들의 언어불능 상태가 공통적으로 두드러진다. 이들 소설 속 아빠는 한결같이 자녀와의 소통을 거부하며 이는 종래의 청소년소설에서 사춘기 청소년들의 전매특허와 같던 행태이다. 이제 청소년들은 고립을 추구하고 소통을 거부하며 예민한 감성을 뽐내는 대신 그러한 증상에 시달리고 있는 어른들을 달래야 하는 것이다.

Maccoby와 Martin(1983) 등은 부모의 양육 유형을 네 가지로 분류했는데 권위적, 허용적, 권위주의적, 거부-무관심형 등이 그것이다.<sup>18)</sup> 2장 ‘숫자의 세계 대 감각의 세계’에서 숫자의 세계를 대표하던 부모가 권위주의적 유형이라면 이 장에서 등장하는 부모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거부-무관심형에 가깝다. 거부와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아버지는 자녀에게 삶의 지표가 되어주는 커녕 성장 불가능의 조건으로 기능한다.<sup>19)</sup> 그 결과 부권은 추락하고, 아버지-자녀 간의 정서적 관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머니는 대개 ‘부재 중’이다. 그래서 가정 문제의 봉합을 주도해야 할 책임은 자녀에게 전가되며, 이러한 양상은 이 연구의 검토 대상이 된 청소년창작소설 뿐 아니라 최근 청소년문학 전반에서 뚜렷하다. 이에 대해 가족 이데올로기의 부활이라며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지만,<sup>20)</sup> 그러

18) E. E. Maccoby and J. A. Martin,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Parent-Child Interaction, In Mussen Editor,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1983.

19) 서은경, 『현대문학과 가족 이데올로기 (1) : 아버지 부재의 성장소설을 중심으로』, 『돈암어문학』 19, 돈암어문학회, 2006, p.106.

20) 김혜정, 『청소년문학에 나타난 가족해체서사 연구』, 『아동청소년문학연구』 10, 한국

한 목소리들의 기저에 깔려있는 전제, 즉 반드시 청소년이 가족과 분리되어야만 독립된 인격체로 성숙했다는 명제 역시 일종의 강박일 수 있다. 청소년작가소설 속 인물들이 능동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소통의 복구, 그리고 그 결과 얻어진 관계의 부분적 복구가 오히려 의미있는 성장의 표지일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 IV. 상속의 논리

이처럼 부모, 특히 아버지가 청소년 자녀에게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에너지나 목소리를 잃어버린 상태로 형상화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은 이 시대 청소년들의 현실 인식과 어떻게 관계되는 것일까. 심영희(1998)가 지적하듯 IMF 이후 국가적 실업 사태는 가정의 해체를 불러왔고,<sup>21)</sup> 적자생존의 잔인한 규칙에서 탈락하거나 그것에 매끄럽게 적응하지 못한 채 도태된 부모의 모습은 부권의 추락을 불러왔다. 부모들이 제 자신 탈락하거나 부적응한 체제의 규칙을 자녀만은 잘 체득하기를 바라며 학업을 통한 성취를 강요할 때 부모-자녀 간의 갈등과 불통은 더욱 심화된다. 자녀들은 그러한 부모의 현실 인식에 저항하면서도 은연 중에 부모 세대가 주문처럼 되뇌었던 현실의 규칙을 일종의 모유 이데올로기(mother-milk ideology)로 학습한다. 그리고 지속적인 학습의 결과는 청소년들의 현실 인식을 강력하게 틀짓는다. 장은주(2008)의 지적대로 생활

---

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2, pp.186-188; 김윤, 『청소년소설과 가족 이야기』, 『창비어린이』 11-4, 창작과비평사, 2013, p.202.

21) 심영희, 『IMF 시대의 청소년문제 양상과 과제 : 위험사회의 관점에서』, 『청소년학연구』 5-3, 한국청소년학회, 1998, pp.127-138.

세계 속 살벌한 생존 경쟁으로 인해 제 2의 본성이 된 속물근성이 어느새 이 땅의 “도덕적 정언명법” 지위에 오른 것이다.<sup>22)</sup>

청소년작가소설 속 ‘나’들은 그러한 정언명법에 따라 자신과 부모의 사회적 자본을 냉정하게 가늠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즉 “신체발부 수지부모(身體髮膚受之父母)”로 대변되는 부모-자녀 간의 유전적 연결고리만큼이나 자본, 취향, 계급이라는 사회적 연결고리가 강하게 의식되는 것이다. 흔히 ‘수계계급론’으로 불리는 이러한 인식이 고등학생 작가들의 소설 뿐만 아니라 중학생 작가들의 소설에서도 뚜렷하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중등부 금상 수상작인 조정빈의 <당신은 나쁜 사람들입니다>에는 편의점 알바를 하는 ‘나’, ‘나’에게 밀린 월급을 주지 않으려 절도 누명을 씌우는 편의점 점장, 그리고 ‘나’가 월급을 받지 못한 날 점장에게 자가용을 선물 받는 점장의 딸이 등장한다.

2014년 1월 11일, 그가 이 편의점 야간 알바로 채용되던 날이었다. 그는 계약서에 찍힌 시간당 4000원의 임금을 보고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2014년 4월 28일,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수술로 1월부터 쪽 밀리던 월급을 받아야 할 것 같다는 남자의 절박한 목소리에, 점장은 ‘어, 이걸 어찌지.....이번 달이 적자라 내가 다음 달에 확실히 챙겨 줄게, 조금만 버텨 봐, 응?’이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아마 그날이 점장의 딸이 생일 선물로 새 차를 받은 날이었을 것이다.(327)

이 단편은 인물도, 사건도 최소화함으로써 최저임금을 간신히 웃도는 시급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나’와 생일 선물로 반짝이는 차 키를 받아든 점장의 딸 간의 명암을 선명하게 강조한다. 유전적, 사회적 복권을 끊은 자와

22) 장은주, 「상처 입은 삶의 빛나간 인정투쟁」, 『사회비평』 29, 나남출판사, 2008.3.

굽지 못한 자의 이분법은 고등부 동상 수상자인 유희주의 <노아를 위하여>에서 보다 세련되게 변주된다.

SF 소설의 문법을 차용하고 있는 이 소설에서 인물들은 방주에 탈 수 있는 시민 계급 노아와 비(非)시민 계급인 비(非)노아-비노아는 인터넷과 앱스토어도 사용할 수 없다 로 분류된다. 방주 티켓을 구입할 수 있는 자본을 가진 노아들만 멸망이 예정된 지구에서 탈출할 수 있다. ‘나’의 아빠는 성실하고 선량한 생활인이었으나 방주 티켓을 사자마자 회사를 버린 사장에 의해 철저히 버림받는다.

“사장이 아빠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우리’ 회사도 방주 안으로 입점하려고 했으나 워낙 쟁쟁한 후보에 밀려 자신의 가족들 표밖에 끌지 못했다. 였다...아빠가 잘못된 것은 없었지만 그 전에도 허울뿐이었던 도덕과 도리가 한 꺼풀 벗겨진 지금, 교활할 줄 모르고 우직하기만 했던 아빠의 처신은 죄였다.”(190)

우직했던 아빠의 처신이 죄였다는 ‘나’의 발화는 사실 아빠의 계급이 죄였다는 발화나 다름없다. 신귀족 노아들에게는 자신들을 시종들어줄 노예, 즉 골리앗이 필요했고, 비노아 중 총명하고 유능한 인물을 골리앗으로 뽑아 방주에 태운다는 설정 역시 의미심장하다. 아무리 출중하다 해도 상속된 자본을 보유하지 못한다면 노아 계급의 시종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시종이 되는 것이 비노아들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자 비노아들이 가질 수 있는 전망의 최대치라는 것이다.

SF 영화 <가타카>(1997)<sup>23)</sup>를 연상시키는 이 공포의 서사는 더 이상

23) <가타카>는 시험관 수정을 통해 선택적 우성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자들이 인간의 사랑으로 태어난 불완전한 인간을 지배하는 미래를 그린 SF 영화이다. 열성 유전자를 가진 인물 빈센트가 고문에 가까운 수술을 견디며 우성 인자를 구입하고 최고의 우주

허구가 아니라 강고한 ‘현실’로 청소년들의 인식 속에 자리잡고 있다. “부모는 무력하고 가난하다 따라서 나도 무력하고 가난하다 또한 나의 후속 세대도 무력하고 가난하다. 이하동문”의 삼단논법에 의거하여 청소년들은 과거와 현재, 미래가 모두 선(先)규정되어 있는 세대로 자처한다. 과거, 현재, 미래의 이 요지부동한 일관성 및 연속성이 전망(vision) 없는 청소년소설, 성장 없는 청소년소설을 만든다. 청소년작가소설 속 ‘나’들은 굳이 성장의 문턱을 경유하지 않고도 놀랍도록 노숙해져있는 것이다.

## V. 요약 및 제언

지금까지 청소년창작소설에서 부모-자녀 관계가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가족서사가 탄생한 원인과 맥락, 의미는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먼저 청소년작가들은 성인의 세계와 자신들의 세계를 이항대립적으로 분리시키고 있는 경향을 뚜렷이 드러냈다. 세속의 논리에 철저하게 입각하고 있는 성인(부모)세대가 흑백의 세계로 표상된다면, 감각을 통해 세계를 맛보고 즐기며 다양성과 차이를 긍정하는 청소년 세대는 다양한 빛깔이 공존하는 세계로 표상된다.

이러한 대립 속에서 빚어진 갈등이 누적되면서 점차 부모들은 그들의 논리를 강요하는 괴물이나 소통이 불가능한 병자로 형상화된다. 청소년작가들의 눈에 비친 부모는 많은 경우 심신의 병을 앓고 있는 상태이며, 질풍노도의 시기를 통과하고 있어야 할 청소년들이 외려 더 멀쩡한 상태로 그

---

항공 회사 가타카에서 일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이 주된 서사적 열개를 이룬다. 이 영화는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느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 하느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는 전도서 7장 13절로 시작한다.



려진다.

부모들은 심각한 속물 상태이거나 실어증, 말더듬이, 대인기피증 등을 앓고 있고, 부모의 언어를 익혀 병든 부모들과의 소통 관계를 복구하고자 고군분투하는 것은 자녀이다. 예전에는 권위적인 가족권력을 행사하는 억압적 부모가 문제였다면 이제는 소통불능이나 마음의 질병에 걸려있는 부모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한편 수저계급론이 대표하는 청소년들의 비관적 세계인식은 일반적인 성장소설의 문법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철저히 상속과 자본이 지배하는 세계 속에서 청소년들은 좋은 삶든 부모가 물려준 '계급' 안에 유입되며, 이 계급은 허구세계의 공간 안에서도 극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공고하다.

이처럼 청소년작가들의 소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 인식과 그것의 허구적 해결/미해결 방식을 문학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연구의 대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청소년창작소설을 주된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소설 속 가족서사를 통해 청소년들의 현실 인식과 문학적 대응 양상을 탐구했다는 데 본 논문의 의의가 있다. 다만 『팝콘전쟁』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분석을 전개했다는 점에서 연구 대상의 확대와 분석의 심화를 후속 연구의 과제로 삼아 둔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김은빈, 류연웅 외, 『팝콘전쟁』 대산청소년문학상 수상作品集 22, 민음사, 2014.

### 2. 논문 및 단행본

구병모, 『위저드 베이커리』, 창비, 2009.

- 김성진, 「청소년 소설의 장르적 특징과 문학교육」, 『비평문학』 39, 한국비평문학회, 2011, pp.60-83.
- 김운, 「청소년소설과 가족 이야기」, 『창비어린이』 11-4, 창작과비평사, 2013, pp.189-203.
- 김은하, 「청소년 문학과 21세기 소녀의 귀환-여성작가의 청소년 소설을 대상으로」, 『여성문학연구』 24, 한국여성문학학회, 2010, pp.293-326.
- 김혜정, 「청소년문학에 나타난 가족해체서사 연구」, 『아동청소년문학연구』 10, 한국 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2, pp.177-193.
- 나병철, 「청소년 환상소설의 통과제의 형식과 문학교육」, 『청람어문교육』 44, 청람어 문학회, 2011, pp.363-395.
- 박은숙, 김은경, 성경숙 외, 「개화기 근대소설을 통해 조명한 한국의 부모상」,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11, 아동간호학회, 2005, pp.99-108.
- 서은경, 「현대문학과 가족 이데올로기 (1) : 아버지 부재의 성장소설을 중심으로」, 『돈암어문학』 19, 돈암어문학회, 2006, pp.83-110.
- 석지영, 『법의 재발견』, 김하나 역, W미디어, 2011.
- 심영희, 「IMF 시대의 청소년문제 양상과 과제 : 위험사회의 관점에서」, 『청소년학연구』 5-3, 한국청소년학회, 1998, pp.115-145.
- 유가효, 김길안, 「부모자녀관계와 청소년의 정서지능」, 『인간발달연구』 10-1, 한국인간발달학회, 2003, pp.1-20.
- 이지훈, 『사회과학의 메타분석방법론』, 충북대학교출판부, 1993.
- 장은주, 「상처 입은 삶의 빛나간 인정투쟁」, 『사회비평』 29, 나남출판사, 2008.3, pp.14-34.
- 정선희, 「17-18세기 국문장편소설에서의 부모-자녀 관계 연구」, 『한국고전연구』 21,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pp.169-200.
- 조은영, 정태연, 「자녀의 부모화와 관련된 심리적 특성들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9-1, 한국심리학회, 2004, pp.43-62.
- 조희정, 「치료 서사와 부모 이야기 쓰기」, 『국어교육』 114, 한국어교육학회, 2003, pp.267-294.
- 차경애, 「어머니의 언어유형과 아동의 인지능력의 발달」, 『사회언어학』 5-2, 한국사회 언어학회, 1997, pp.705-731.
- 최새은, 「90년대 단편소설에 드러난 가족의 의미 : 발달적 관점에서 바라본 자녀서사

- 와 부모서사』, 『문학치료연구』 28, 한국문학치료학회, 2013, pp.73-101.
- 하은하, 『부모서사진단검사도구의 문항설정』, 『문학치료연구』 10, 한국문학치료학회, 2009, pp.243-275.
- 한경자, 『아동양육과 간호역할』, 『부모-자녀 건강학회지』 3-1, 부모자녀건강학회, 2000, pp.95-101.
- 황도경, 나은진, 『한국 근현대문학에 나타난 가족담론의 전개와 그 의미: 현대소설』,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2,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4, pp.237-258.
- 황중연, 『비루한 것의 카니발』, 문학동네, 2001.
- 황혜진, 조은상, 김혜미, 김지혜, 김현희, 『초기 청소년기 폭력성의 문학치료적 중재를 위한 시론 -폭력성 진단을 위한 폭력 상황의 유형화를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55, 겨레어문학회, 2015, pp.351-383.
- Berstein, B. A., *Class, codes and control: Theoretical studies towards sociology of language*, London, UK: Routledge&Kegan Paul, 1971.
- Maccoby, E. E. and Martin, J. A.,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Parent-Child Interaction*, In Mussen Editor,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1983.

**Abstract**

## A study on parent-child epic in Juvenile-writing Novels

Woo, Shin-young

In spite of attention about character education, Korean teenager experience serious value-anxiety. Korean literature is a kind of earthquake that we could expect such value-anxiety through literature. Especially, Juvenile-writing Novels are fictional spaces that their authentic voice are spreading. This study aims to read pedagogical meaning of parent-child epic in Juvenile-writing Novels. In other words, this study is an exploration of parent-child relationship in Juvenile-writing Novel. So, this study analyze Daesan Juvenile Novel Award winners, 11 novels that are represented parent-child relationship by method of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Through these analysis, this study find out 3 categories of representation about parent-child relationship. These categories consist of 'World of number vs World of sense', 'stuttering father and mother with aphasia' and 'logic of inheritance'.

Key Word : Juvenile-writing novels, parent-child epic, Juvenile literature, character education, reality consciousness

우신영

소속 : 인천대학교 국어교육과 조교수

전자우편 : sywoo@inu.ac.kr

이 논문은 2016년 6월 30일 투고되어  
2016년 7월 31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6년 8월 5일 게재 확정됨.